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동향: 최근 10년간(2009. 3~2018. 12)을 중심으로

이정규* · 김은경** · 조재순***¹⁾

*주성고등학교 수석교사 · **주덕중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during the Last Decade (2009. 3~2018. 12)

Lee, Jeong Gye* · Kim, Eun Kyung** · Cho, Jaesoon***¹⁾

*Master Teacher, Juseong High School

**Teacher, Judeok Middle School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to review the research trends during the last decade since 2009. In total, 354 articles from 10 volumes, 40 journal books, were analyzed. This amount to 42.3% of total articles in the JKHEEA for the past 30 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journal continuously decreased by approximately 5 articles each year. More than half of articles were co-authored as a joint-research between professors and teachers or graduate students. The numbers of pages,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vary greatly among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KHEEA. The reviewers and authors would need to check if the pages, tables/figures, or references are indispensable, especially in case there are extremely large number of them. Even though survey research with students as participants is still the most common types of research among recent articles, its percentage is decreasing and diverse research methods such as the analysis of textbook or curriculum literature are being used. Also, research integrating the pedagogy and educational content, and in turn developing and evaluating educational programs is increasing, which indicates that the journal identity has become better-defined. It is advisable that authors select the key words that are more relevant to the title, purpose, and research ques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journal revises the publication regulations so that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may be reflected.

Key words: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JKHEEA]),
연구동향(Research Trends), 논문형식(Article Structure), 논문내용(Article Content), 30주년(30th Anniversary)

1) Corresponding Author: Cho, Jaeso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728, Fax: +82-43-231-4087, E-mail: jscho@knue.ac.kr

I. 서론

2019년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1988년 가정과교육 전문학회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전국 국립대학교 소속 가정교육과 학과장회의에서 학회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두 차례 준비위원회의를 거쳐, 1989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JKHEEA], 1989). 학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주요 연례사업은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이다. 제1차 학술대회는 창립총회 후 당해 8월에 개최되었으며 학술지 창간호는 12월에 발간되었다. 학술대회는 이듬해부터 연 2회로 정착되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데 비해 학술지 발간은 창간호(1989년)부터 5년간은 연 1회 1994년부터 6년간은 연 2회 2000년부터 3년간은 연 3회를 거쳐 2003년 이후 연 4회로 확대 유지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8년 이후 국내간행 학술지를 대상으로 우수 학술지 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을 만들고 등재여부를 평가해 오고 있는데,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첫 평가를 통과하여 2000년에 등재후보지로 등재된 이후,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과교육 관련 유일한 전문 학술지이다. 논문의 투고규정은 분량(1999)과 형식(2001), 주제어 첨가(2002)에 이어 표·그림과 참고문헌 영문 표기(2012) 등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에 맞춰 보완되어왔다.

학술지는 학술정보의 교류수단일 뿐 아니라 중요한 정보의 출처이고 지식의 축적수단으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수준을 나타내는 도구이다(Chang, 2004).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회원들의 교육연구 활동이 소통되는 성과물로서 가정과교육의 변화 발전을 담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축적된 지식의 보고이다. 이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나 형식을 분석하여 발표한 연구는 11편으로, 일정시기의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영역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문 3편은 모두 학회의 의미 있는 시기를 전후하여 첫 10년간(Yoon, 2001), 이후 5년간(Yoon, Lee, & Kim, 2005), 20년간(J. Cho, Jun, & Lee, 2009)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서 이를 이어 학회창립 30주년을 맞아 최근 10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분석을 통해 가정과교육관련 최신 연구동향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시기는 현장에 적용된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 마무리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지나 2018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변화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가정교사 양성기관인 가정교육과나 가정교육전공 교육대학원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학회지 누적호수는 30년간 발행된 전체의 44.4%, 게재논문 수는 전체의 42.3%에 이르는 등 학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학회창립 30주년을 맞아 학회와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인 학회지를 중심으로 최근 10년간(2009. 3~2018. 12)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전체논문에서 어떤 연구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10년간(2009. 3~2018. 12) 이루어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회원의 교육연구 활동성공과를 정리하고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학회지 운영이나 연구방향을 탐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논문의 일반적인 발간현황(권, 호, 게재논문 수, 발간형태)을 분석한다.

둘째, 최근 10년간(2009. 3~2018. 12) 학회지 게재논문의 형식(연구자 수와 구성, 쪽수, 표와 그림 수, 참고문헌 수와 JKHEEA 문헌 수)을 분석한다.

셋째, 최근 10년간(2009. 3~2018. 12) 학회지 게재논문의 내용(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 주제어)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과교육환경 변화

학교현장에 최근 10년(2009~2018)간 적용된 교육과정은 전반기 5개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이 마

무리되면서 1, 2학년에 연차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시작됨과 동시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어 전체학년 적용 전에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등 긴박한 변화시기였다. 후반기 5개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시작되는 시기로 전반기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1997)의 가장 큰 변화는 독립된 교과였던 가정기술과 통합되어 기술·가정 교과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정교사는 가정 분야만 탐타칭 할 것인지 기술 분야를 합쳐 기술·가정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자격 표시과목과 담당 교과명 불일치로 인해 가정교사 대상 기술 부전공, 기술교사 대상 가정 부전공 연수가 실시되었고 기술·가정 전공 교사양성과 임용에 관한 논쟁도 컸다. 성격과 목표에서는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중시하며 학생중심 수업을 강조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함양이 강조되었다. 내용체계는 실과, 기술, 가정 내용을 세 공통영역 즉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아래 대단원은 이전과 같은 가정학의 내용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년마다 바뀌던 교육과정이 수시개정 체제로 변경되면서 다소 늦게 발표된 2007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은 월 2회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학교자율 수업시수 감축, 재량활동 운영 등이 실시되었다. 내용체계에서는 중학교 '가정생활' 영역의 대단원이 '청소년의 생활', '가족의 생활', '가정생활의 실제' 등과 같은 통합명칭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가정생활' 영역으로 분리 제시하기 시작한 성격과 목표에서는 현재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역량, 삶의 문제해결능력,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실천 교과라고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1)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9학년까지로 줄어 고등학교 기술·가정이 일반선택교과가 되었다. 중학교에서는 기술·가정이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으로 묶여 교과군별 20% 범위 내 수업시수 자율증감으로 인한 시수감축이 발생하

였다.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 실시로 기술·가정 교과서가 1, 2로 2권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정생활' 영역의 대단원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축소 조정되고 청소년의 자기관리 영역이 독립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성격과 목표에서는 자립적인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가정생활' 영역의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게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학습의 지향점을 자립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 생애설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탐색과 설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 등 거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3년 시범학교 운영에서 시작하여 2016년부터 전체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 다양한 가정 관련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교육현장에서 가정의 폭을 넓히고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에서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세 가지 교과역량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내용체계는 기존의 내용체계를 전면 수정하여 '가정생활 분야'를 3개의 교과영역 즉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으로 나누고, 그 아래 각각 핵심개념이 두 개씩(발달, 관계, 생활문화, 안전, 관리, 생애설계) 있다. 핵심개념별로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안전'이 처음으로 핵심개념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는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주제나 연구내용에 반영되어 가정교육의 연구동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학회의 잠재적 회원이나 연구자 확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교사양성 측면에서는 대학의 가정교육과가 폐과되거나 타과로 변경되는 경우로 인해 전국 가정교육과 숫자가 11개로 감소하였고, 가정전공을 개설하는 교육대학원의 숫자도 감소하는 경향이다. 다행인 점은 최근 수년간 가정교사 신규선발인원이 100여 명을 상회하고 있어 현장 가정 담당교사가 꾸준히 신규임용으로 충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임용교사들은 대부분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 이후 중학교부터 가정 대신 기술·가정을 배웠다는 점에서 비취볼 때, 가정교사로서 기술·가정을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 이전 탐타칭

논란이 뜨거웠던 때보다 좀 더 수용적 일 수도 있다. 가정교사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가운데 교사자격증과 임용과목에 맞춰 기술·가정의 팀티칭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단위학교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과를 운영함으로써 예비교사 현장 교육 실습 시 ‘기술 분야’ 수업만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등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한 교과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건 아닌지 또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변화에 따라 가정학의 세부영역을 어떻게 분화시켜 준비해야할지 차기 개정 교육과정 대비 등이 앞으로 학회차원에서 정교하게 숙의하고 대처해야 할 당면과제로 다가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가정과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회원들이 다각적으로 교육 연구 활동한 결과가 담긴 최근 10년간(2009. 3~2018. 12)의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정리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 또는 일부 혹은 다른 것과 합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타 학술지(Yang & Shin, 2003)가 아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30년간 총 11편이었다(<Table 1>). 발표 시기는 학회지 발간 10주년을 갖 지난 2001년에 2편, 20주년 무렵인 2009년에 3편, 이 둘 사이인 2005~2007년에 4편이 있었다. 이들 연구가 주로 학회지 발간 15~20주년 사이에 집중된 한편 학회지 발간 20주년이 지난 이후 최근 10년간(2009~2018)에는 2편이 발표되어 이전에 비해 뜸한 편이다.

이들 선행연구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논문 전체를 분석한 경우가 3편(J. Cho et al., 2009; Yoon, 2001; Yoon et al., 2005)으로 이 보다는 개별연구의 연구주제에 맞는 논문만을 선택하여 분석한 경우(8편)가 더 많았다. 해당 학회지 전체를

Table 1. List of research analyzing the contents of articles in the JKHEEA

Year vol.(#)	Author	Title	Journal	Period	# of Articles	Content
2001 13(1)	Ryu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on home economics education	JKHEEA	1989(1.1)~1999(11.2)	22	Qualitative articles
2001 13(2)	Yoon	Trend analysi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 Korea	JKHEEA	1989(1.1)~1998(10.2)	142	All
2005 17(4)	Kim & Rhee	A study of consumer education research on school-ages children and adolescents	JKHEEA + 5 more	1986~2004	25	Consumer education
2005 17(4)	Yoon et al.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JKHEEA + 2 more	1999(12.1)-2003(16.4)	232	All
2007 19(2)	Park et al.	Contents analyses of housing educational research in home economics of secondary school	JKHEEA + web search	1985-2006	24	Housing education
2007 19(2)	Jang	Trends of housing education research in Korea and Japan from 1989-2007	JKHEEA JJHEEA	1989(1.1)~2006(18.4)	49	Housing education
2009 21(2)	Moon & Lee	Research trend i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JKHEEA + 3 more	1989(1.1)~2008(20.4)	175	Clothing · textiles education
2009 21(3)	B. Cho et al.	Research trends o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i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JKHEEA	1989(1.1)~2008(20.4)	93	Human dvmt. · family studies
2009 21(3)	J. Cho et al.	The 20 years' activities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JKHEEA	1989(1.1)~2009(21.1)	492	All
2014 26(3)	Kim et al.	Research trends in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JKHEEA + 2 more	1985-2013	219	Teaching · learning methods
2017 29(3)	Joo et al.	Contents analyses of teaching-learning research on housing education of home economics for secondary schools	JKHEEA + theses	2001-2016	22	Housing teaching · learning

분석한 경우는 대략 학회지발간 초기 10년(Yoon, 2001), 그 후 5년(Yoon et al., 2005), 20년 무렵(J. Cho et al., 2009)과 같이 학회의 의미 있는 시기에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주제에 따라 일부논문을 선택한 경우는 교과교육에서는 질적 연구(Ryu, 2001)나 교수·학습방법 연구(Kim, Kwon, & Lee, 2014)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있으며, 교과내용으로는 의생활교육(Moon & Lee, 2009), 주생활교육(Jang, 2007; Joo, Cho, & Choi, 2017; Park, Yu, Lim, Lee, & Cho, 2007), 소비자교육(Kim & Rhee, 2005), 인간발달·가족학(B. Cho, Lee, Lee, & Joo, 2009) 연구로 교과내용영역에서 고르게 이루어졌다. 특이한 점은 식생활교육을 주제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것과 주생활교육을 주제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분석대상 논문을 추출한 학회지는 한국가정교교육학회지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4편(B. Cho et al., 2009; J. Cho et al., 2009; Ryu, 2001; Yoon, 2001)이었으며 이를 비롯하여 특정 타 학술지를 포함한 경우가 5편(Jang, 2007; Kim & Rhee, 2005; Kim et al., 2014; Moon & Lee, 2009; Yoon et al., 2005)으로 비슷하였다. 나머지 두 편(Joo et al., 2017; Park et al., 2007)은 여기에 미발표 학위논문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포함된 타 학술지 경우는 대부분 대한가정학회지(4편), 한국실과교육학회지(3편)이었으며, 교과내용연구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한국의류학회지(Moon & Lee, 2009), 한국주거학회지(Park et al., 2007), 소비자학연구(Kim & Rhee, 2005) 등과 같은 해당 내용 학 전공학회지를 더 포함하고 있었다. 타 학술지를 포함한 경우에도 선정된 논문 수는 가정교교육 전문학술지인 한국가정교교육학회지가 당연 우세하였다. 모든 연구들이 국내에서 발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유일하게 Jang(2007) 연구는 일정기간 한국가정교교육학회지와 일본가정교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양국 간 비교한 것이 돋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은 대체로 논문편수, 연구영역이나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자, 연구방법, 대상규모, 자료분석방법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개별논문의 영향력이나 학회지 평가에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해당 학회지 인용정도나 연구의 핵심개념(용어)인 주제어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밖에 교과내용연구에서는 연구의도에 따라 연구주제나 특정부분을 세분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기도(B. Cho et al., 2009; Joo

et al., 2017; Kim & Rhee, 2005; Kim et al., 2014; Moon & Lee, 2009) 하였다. 분석내용 가운데 연구영역과 연구주제 분석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영역이나 연구주제 중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한 논문은 8편으로 연구영역만을 제시한 경우가 3편(J. Cho et al., 2009; Kim et al., 2014; Yoon, 2001)과 연구주제로 제시한 경우가 5편(B. Cho et al., 2009; Joo et al., 2017; Kim & Rhee, 2005; Park et al., 2007; Ryu, 2001)이었다. 나머지 3편(Jang, 2007; Moon & Lee, 2009; Yoon et al., 2005)은 연구영역과 연구주제를 둘 다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영역과 연구주제를 구성한 범주를 보면 연구영역을 분류한 연구는 교육학이나 교과교육학의 학문영역과 유사하게 나눈 초기연구(Yoon, 2001)를 참고하여 철학 및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과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교육평가, 교사교육, 교과에 대한 인식도, 시설 설비현황 등을 그대로 혹은 일부만 또는 합하거나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주제로 분류한 연구는 가정학의 학문분야나 교과서단원과 유사하게 교과교육학, 식생활교육, 의생활교육, 주생활교육, 자원관리/소비생활교육, 인간발달/가족학, 기타 등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 논문 중에는 교과교육 분야를 세분하여 연구영역 항목을 일부 포함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Kim과 Rhee(2005)는 연구주제를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소비자교육 요구분석, 소비자 능력관련 3가지로 나누고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주제는 다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방법(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평가, 교사관련, 교육지원 5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B. Cho 외(2009)는 연구주제를 크게 교과교육과 교과내용으로 나누고 교과교육은 가정과임용고사의 분석들을 활용하여 가정교교육의 철학과 교사의 전문성, 가정과 교육과정, 가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 3가지로 중분류한 후 이를 각각 2~3개씩 소분류 하였다. 이들 연구주제 범주에는 교과교육을 세분하여 포함하고 있어 연구영역과 연구주제를 혼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J. Cho 외(2009)는 간략히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누고, 교과교육학을 교과교육, 교과교육과 교과내용 통합연구로 구분한 후, 교과교육과 교과내용이 통합된 논문의 연구주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대상논문을 분석하여 제시한 분석방법은 현황이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부분 각 변수의 빈도(백분율)만 제시하거나

연도나 발간 호 등 시기별 혹은 학회지별 빈도(백분율)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더해 연구주제별(B. Cho et al., 2009; Kim & Rhee, 2005; Moon & Lee, 2009; Park et al., 2007) 혹은 통합연구 같은 특정연구(J. Cho et al., 2009) 등의 실태를 제시한 것도 있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두 편(Kim et al., 2014; Moon & Lee, 2009)이 있었다. Moon과 Lee(2009)는 대상논문 175편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를 연구방법, 학회지, 교육과정 시기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도를 나타내는 통계결과를 제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다. Kim 외(2014)는 대상논문 219편을 교차분석을 통해 시대별, 내용영역별로 교수학습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대, 내용영역, 교수학습종류별로 종속변수인 수업효과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교차분석으로 χ^2 검증 하였다. 이 두 연구는 가정과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분석 연구 가운데 변수와 항목을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 두 변수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분석한 발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2009. 3~2018. 12)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권 1호~30권 4호에 게재된 논문 354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틀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논문투고규정 제11조에 제시된(KHEEA, n.d.) 연구논문의 형식을 참고하면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주년에 발표된 연구(J. Cho et al., 2009)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선행연구(Yoon, 2001; Yoon et al., 2005)에서 제시한 내용에 점차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참고문헌 중 학회지 인용정도와 주제어 분석을 포함하였다. 학회지 게재논문의 형식은 저자 수와 구성, 쪽수, 표와 그림 수, 참고문헌 수와 JKHEEA 문헌 수에 대한 4가지들, 내용은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였다. 형식과 내용의 구분 기준은 개별논문에서 내용을 읽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자에 그리고 본문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후자로 하여 연구내용에 맞춰 두 범주로 나눠 제시하였다. 추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과 같은 일부 변수의 값은 초기 20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J. Cho et al., 2009)와 같게 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에 해당하며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연구자가 함께 논문에서 분석할 항목의 변수와 각 변수의 값을 정하여 코딩규칙을 작성하였다. 이 코딩규칙에 따라 각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개별논문을 분석단위로 하여 논문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엑셀에 입력한 후, 연구자간 변수 값의 코딩이 일치하는지 교차 점검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원문을 보면서 숙고를 통해 합의하여 데이터 파일을 완성하였다.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분포와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제어는 <https://worditout.com/word-cloud/create> 사이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한글 단어 구름 만들기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발간현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1989년 1권부터 매년 발간되어 2018년에 30권(통권 제90호)에 이르렀다. 각 권은 첫 5년간은 연간 1회, 그 다음 6년간(1994~1999)은 연간 2회로 늘어나고, 그 다음 3년간(2000~2002)은 연 3회, 이어 창간 15주년이 되는 2003년부터는 연 4회로 증호한 후 꾸준히 4회 발간을 유지하고 있다(<Table 2>). 특히 학회창립 즉 학회지 창간 11~15주년 사이에 연간 발간횟수가 2회에서 3회를 거쳐 4회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30권 4호가 발행되어 학회지의 누적 호수는 90호이며, 게재논문

누적 수는 837편이다. 이 가운데 최근 10년간 발표된 논문은 354편으로 전체의 42.3%에 해당한다.

연 4호 발간을 시작한 이후 5년간씩 연평균 게재논문수를 보면, 2004~2008년은 42.8편, 2009~2013년은 37.8편, 2014~2018년은 33.0편으로 연간 평균 약 5편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재논문 수 감소는 가정교육과 폐과 등에 따른 잠재적 연구자수 감소, 표·그림과 참고문헌 영문표기(2012)나 논문심사 강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으나 추후 감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관심과 정확한 원인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10년간 학회지 발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3>) 2009년 21권부터 2018년 30권에 걸친 학회지 발행 누적 수는 10권 40호이다. 각 호에는 적게는 6편 많게는 12편

의 논문이 게재되어 호당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1~4호를 합쳐 권으로 보면 매년 게재논문 수는 권당 29~42편으로 평균 약 35.4편, 호당 약 9편이 실린 셈이다. 게재논문 수는 후반 5년간이 165편(46.6%)으로 전반 5년간 189편(53.4%)보다 24편 줄었다. 전체적으로 1, 2호보다 3, 4호에 실리는 논문 수가 다소 많은 경향을 띤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후반 5년간(2014~2018)에서 보이는데 12월호 게재논문 수가 다른 호에 비해 많았던 점은 2000년 연 3회 발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나타난 양상이다(J. Cho et al., 2009). 이는 연구결과를 진행하여 연구자의 당해 연도 연구업적 평가를 위해 마지막 호에 게재하게 되거나, 대학원 학위논문이 게재되기까지 요약정리부터 일련의 시간이 걸려 나타나는 것일 수 있겠다.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JKHEEA by 5-year interval

Year	Vol. (#)	# of Journal	# of Articles	Sub-total	Type of publication
1989-1993	1(1)~ 5(1)	5	41	142	annual
1994-1998	6(1)~10(2)	10	101		biannual
1999-2003	11(1)~15(4)	15	127	341	biannual → 3 times (2000) → quarterly (2003)
2004-2008	16(1)~20(4)	20	214		quarterly
2009-2013	21(1)~25(4)	20	189	354	quarterly
2014-2018	26(1)~30(4)	20	165		quarterly
Total	30	90	837		

Table 3. General information of JKHEEA for last 10 years

Year	Volume	Number of Articles				Sub-total
		No. 1	No. 2	No. 3	No. 4	
2009	21	9	12	11	10	42
2010	22	9	10	11	10	40
2011	23	9	10	10	9	38
2012	24	7	9	12	9	37
2013	25	10	8	7	7	32
2014	26	8	7	7	9	31
2015	27	7	7	7	11	32
2016	28	6	7	6	10	29
2017	29	8	6	10	11	35
2018	30	8	8	11	11	38
Total		81	84	92	97	354

2. 학회지 게재논문의 형식

1) 저자 수와 구성

① 저자 수

논문의 저자 수는 1~14인으로 2인이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인(22.6%), 3인(20.6%), 4인 이상(8.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전체적으로 10편 중 2편 남짓(22.6%)은 단독논문인 반면 8편 가까이(77.4%)는 공동저자 형태로 발표된 것이다. 공동저자 수는 주로(69.0%) 2, 3인으로 2인 공동(48.4%)이 3인 공동(20.6%)보다 2.3배 이상 더 많았으며 4인(4.2%)이나 5인 이상 (4.2%)인 논문은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14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저자의 연인원은 815명으로 논문 편당 평균 2.3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20년간 발행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J.

Cho et al., 2009)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단독연구(22.8%→22.6%)와 공동연구(77.2%→77.4%)의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는 데 비해 2인 공동연구(63.2%→48.4%)는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지만 집중도가 낮아지면서 3인(9.6%→20.6%), 4인 이상(4.4%→8.4%) 등 다인 수 저자 연구가 이전(14.0%→29.0%)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논문 편당 저자 수도 2.0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였다.

② 저자 직위 구성

전체논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인 이하 논문저자의 직위구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Table 4>). 단독연구(전체의 22.6%) 저자는 70.0%가 교수였으며, 나머지 30.0%는 교사(18.7%)나 연구원(6.3%), 강사, 대학원생이었다. 2인 공동연구(전체의 48.4%)의 저자는 교수와 교사(40.3%)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수와 대학원생(36.8%)으로 이들이

Table 4. Number and status of authors and number of pages

# of Authors	N	%	# of Pages	N	%
1	80	22.6	9-14	87	24.6
2	171	48.4	15-19	181	51.1
3	73	20.6	20-24	64	18.1
4	15	4.2	25-34	22	6.2
5-14	15	4.2			
Mean		2.3		17.4	
Median		2.0		17.0	

Composition of Author's Status by the Number of Authors								
Single author			2 Authors			3 Authors		
Status	N	%	Status	N	%	Status	N	%
Professor	56	70.0	2 Professors	27	15.8	3 Professors	9	12.3
Teacher	15	18.7	Professor+Teacher	69	40.3	2 Professors+Teacher	10	13.7
Researcher	5	6.3	Prof.+Grad. Student	63	36.8	2 Professors+Student	15	20.5
Lecturer	2	2.5	Prof.+Researcher	6	3.5	2 Professors+Researcher	2	2.7
Grad. Student	2	2.5	Prof.+Lecturer	2	1.2	2 Professors+Lecturer	4	5.5
			2 Teachers	2	1.2	Professors+2 Teachers	5	6.8
			Teacher+Lecturer	1	.6	Prof.+Teach.+Student	12	16.4
			Teacher+Researcher	1	.6	Professors+2 Students	8	11.0
						Prof.+Teach.+Other	6	8.2
						Prof. +Stud.+Other	2	2.7
Total	80	100		171	100		73	100

77.1%를 차지하여 교수 2인(15.8%)으로 구성된 경우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3인 공동연구(20.6%)의 저자구성에서는 교수는 어느 경우나 포함되어있으면서 교수만 3인(12.3%)보다는 교수 1, 2인에 다른 연구자가 합쳐진 경우(87.7%)가 일반적이었다. 교수 1인과의 조합(42.4%)보다는 2인과의 조합(45.1%)이 다소 더 많았다. 가장 많은 3인 저자구성은 교수 2인과 대학원생(20.5%)이었으며 그 다음은 교수 1인과 교사와 대학원생(16.4%), 교수 2인과 교사(13.7%), 교수 1인과 대학원생 2인(11.0%)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흔한 저자구성은 교수와 교사나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2인 공동연구로 전체의 1/3 이상(37.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초기 20년(53.3%)에 비해(J. Cho et al., 2009) 감소하긴 했어도 여전히 대체는 유지되고 있다. 교수와 대학원생이나 교사로 구성된 2, 3인 공동논문을 통틀어 보면 교수와 함께 교사나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2인 공동연구(132편)와 교수 1, 2인과 교사나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3인 공동연구(50편)를 합쳐 전체논문의 절반 이상(51.4%)을 차지한다. 이도 역시 초기 20년(59.6%)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교수와 교사/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공동저자연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집중도가 다소 약해지면서 강사나 연구원 등 다양한 저자로 구성된 공동연구와 함께 4인 이상 다인수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저자수와 저자구성을 종합해 보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대학원생이나 교사의 학위논문이나 학위과정 중의 연구 성과를 지도교수 1, 2인과 함께 발표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2) 쪽수

개별논문의 분량은 9-34쪽으로 차이가 컸다. 절반 좀 넘는 (51.1%) 논문은 평균(17.4쪽)이나 중앙값(17쪽) 내외인 15~19

쪽이었으나,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15쪽 이하(24.6%)이거나 20쪽 이상(24.3%)이었다(<Table 4>). 25쪽을 넘는 경우도 소수(22편, 6.2%)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쇄논문의 줄 간 크기나 글자크기, 양단편집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투고규정(KHEED, n.d.) 제 12조에 투고 원고매수를 A4 용지 15매 내외로 제시한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논문이 대다수여서 원고매수 제한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3) 표수와 그림 수

① 표수

개별논문에서 제시한 표수는 0부터 22개로 범위가 컸으며 평균(7.3개)이나 중앙값(7개) 내외인 5-9개가 절반 이상(52.9%)이었다(<Table 5>). 나머지 23.4%는 4개 이하, 23.7%는 10개 이상이었다. 표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거나(2편, 0.6%) 1개 제시(6편, 1.7%)한 경우가 있는 반면, 20개 내외를 제시한 경우도(5편, 1.5%) 있어 논문별로 제시한 표수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② 그림 수

그림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논문이 58.5%로 하나라도 제시한 경우(41.5%)보다 많았다(<Table 5>). 그림을 제시한 경우는 1개 또는 2개(25.4%)가 3개 이상(16.1%)보다 더 많았다. 3개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6개 이하(12.9%)였으나, 10개, 12개(각각 2편, 0.6%), 심지어 29개인 경우도(1편) 있었다. 평균 그림 수(1.2개)는 6개를 넘는 16편인 소수사례의 영향을 배제하면 0.9개로 평균이 채 한 개에 미치지 못한다.

③ 표와 그림 수 합

개별논문의 표와 그림수를 합해 보면, 전혀 없는 경우부터

Table 5. Number of tables and figures of an article

# of Tables	N	%	# of Figures	N	%	# of Tables+Figures	N	%
0-4	83	23.4	0	207	58.5	0-5	90	25.4
5-9	187	52.9	1-2	90	25.4	6-10	170	48.1
10-14	64	18.1	3-5	41	11.5	11-15	73	20.6
15-22	20	5.6	6-29	16	4.6	16-31	21	5.9
Mean	7.3			1.2			8.5	
Median	7.0			0			8.0	

31개인 경우까지 범위가 더욱 넓게 나타난다(<Table 5>). 평균(8.5개)이나 중앙값(8개)을 전후한 6~10개에 절반 가까운 경우(48.1%)로 분포한 반면, 25.4%는 5개 이하, 26.5%는 11개 이상이었다. 20개를 초과한 경우(6편, 1.7%), 심지어 30개를 넘는 경우도 한편 있었다.

이상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개별논문은 표 7~8개, 그림 0~1개를 즉, 표 위주로 표와 그림 합해서 8개 남짓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논문에 따라서는 표나 그림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31개까지 매우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 수

참고문헌에 제시된 문헌 수는 8~98개로 개별논문 간 차이가 10배 이상으로 매우 컸으며, 평균 38.0개 중앙값 35개로 뚜렷한 최빈값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구간을 세분해 보면 21~30개(24.3%), 31~40개(23.7%), 41~50개(16.9%)를 합쳐 약 65.0% 논문이 참고문헌을 21~50(35±15)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약 35.0% 논문은 이 구간 좌우로, 20개 이하(13.6%)나, 50개가 넘는(21.5%) 경우에 해당한다. 60개를 초과하는 경우(9.6%)는 60여 개(14편, 3.9%), 70여 개(13편, 3.6%), 8·90여 개(각각 3편, 0.9%; 4편, 1.2%)로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매우 넓게 분포하였다. 참고문헌 수 분포를 10분위로 나눠 봤을 때 하위 10분위는 20개 미만을 상위 10분위는 60개 이상을 제시하고 있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② JKHEEA 게재논문의 참고문헌 수

참고문헌 중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논문의 수는 0~35개로 평균은 3.7, 중앙값은 2개였다(<Table 6>).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해당학회지 논문을 한편도 참고문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26.6%나 되었다. 30%가량의 논문은 1, 2개를 참고하고 있어 절반 이상(56.2%)의 논문이 본 학회지 논문을 한편도 참고하지 않거나 혹은 1, 2편정도 미미하게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8.8%는 11개 이상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4편(1.1%)은 20여 개를, 2편(0.6%)은 30여 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의 영향을 제외하면 평균 2.6개가 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③ 참고문헌 중 JKHEEA 게재논문의 비율

개별논문에 제시한 참고문헌 수에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 논문수의 비율을 보면 0~72.9%로 개별 차이가 매우 컸다(<Table 6>). 평균은 10.9%, 중앙값은 5.3%로 평균 참고문헌 10개 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논문이 1개 정도인 셈이지만 이것은 30%대(18편, 5.1%), 40%대(11편, 3.1%), 50% 이상(6편, 1.7%)의 인용비율이 높은 일부 논문에 의한 영향이고, 1/4 이상(26.6%) 논문에서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 논문을 단 한 편도 참고하지 않았으며, 1/3 이상(35.9%) 논문은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3/5(62.5%) 이상의 논문이 참고문헌 10개 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논문을 채 1편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논문의 영향력이나 학회지의 중요도 지표로 쓰이는 논문

Table 6. Number of references and JKHEEA articles in the references

a) # of References	N	%	b) # of JKHEEA Articles	N	%	b/a %	N	%
8-20	48	13.6	0	94	26.6	0	94	26.6
21-30	86	24.3	1-2	105	29.6	0.1-5미만	76	21.5
31-40	84	23.7	3-5	73	20.6	5-10미만	51	14.4
41-50	60	16.9	6-10	51	14.4	10-20미만	55	15.5
51-60	42	11.9	11-20	25	7.1	20-30미만	43	12.1
61-98	34	9.6	21-35	6	1.7	30-40미만	18	5.1
						40-50미만	11	3.1
						50-72.9	6	1.7
Mean	38.0		3.7				10.9%	
Median	35.0		2.0				5.3%	

의 피인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학회지 논문에서의 피인용 비율 제고에 앞서 자체 학회지에서의 인용을 높이도록 하는 합의된 노력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추후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시행되어야 하겠으나, 학회지에 게재된 가정과교육관련 학위논문인 경우는 학위논문 자체보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문헌에 제시하도록 안내하는 것과 같은 노력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소수(4.2%)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둘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연구의 70% 이상이 초·중·고등학생이나 교사, 대학생, 학부모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중·고등학생 다음으로 흔히 사용된 연구대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20년에 비해(J. Cho et al., 2009) 초·중·고등학생 대상연구가 가장 많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에 대한 집중도(62.0%→52.0%)가 다소 완화되면서 교과서(8.1%→28.8%) 등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3. 학회지 게재논문의 내용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52.0%로 절반이 넘었으며, 그 다음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혹은 선행연구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한 경우가 28.8%이었다(<Table 7>). 이 중 15.0%는 학생 이외에 교사나 대학생, 일반성인, 학부모를

2) 연구영역

연구영역을 교과교육, 교과내용, 교과교육과 교과내용을 통합한 교과내용교육통합 세 가지로 나눠 알아본 결과(<Table 8>), 교과내용교육통합(41.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과내용(38.7%), 교과교육(1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20년에는 세 영역연구 비율이 비슷했던 것에 비해(J. Cho et

Table 7. Types of research sample

Students	N	%	Adults	N	%	Materials	N	%	Others	N	%
Elementary	4	1.2	Teacher	25	7.0	Curricula	40	11.3	Teacher+middle or high stud.	2	.6
Middle Sch.	93	26.4	Parent	2	.6	Textbook	43	12.1	Student+parent	7	1.9
Highschool	49	13.8	Adult	12	3.4	Previous studies	17	4.8	Student+curricula	1	.3
Secondary	38	10.7	College	14	3.9	Teacher recruit exam.	2	.6	Others	5	1.4
Total	184	52.0		53	15.0		102	28.8		15	4.2

Table 8. Research areas and subjects

H. E. Education	N	%	H. E. Content	N	%	H. E. Content+Education	N	%
Philosophy & history	8	11.6	Food & nutrition	32	23.3	Food & nutrition edu.	27	18.2
Curriculum & textbook	31	45.0	Clothing & textiles	12	8.8	Clothing & textiles edu.	37	25.0
Teaching learning methods & materials	7	10.1	Housing			Housing edu.	23	15.5
Evaluation	4	5.8	Human dvmt. & family	61	44.4	Human dvmt. & family edu.	28	18.9
Teacher edu.	9	13.0	Management & consumer	9	6.6	Management & consumer edu.	14	9.5
Perception on H.E.	10	14.5	Cultural integration	9	6.6	Cultural integration edu.	10	6.8
			Low fertility & aging	2	1.5	Low fertility & aging edu.	2	1.4
			Career	6	4.4	Career edu.	7	4.7
			Population	4	2.9			
			Environment	2	1.5			
Total n(%)	69	(19.5)		137	(38.7)		148	(41.8)

al., 2009) 교과교육과 교과내용통합연구(34.8%→41.8%)와 교과내용(32.5%→38.7%)연구가 증가한 반면, 교과교육(32.7%→19.5%) 연구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교과교육연구의 일부가 교과내용과 합쳐진 교과내용교육통합연구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교과교육연구에서는 이전에 비해 교과에 대한 인식연구(22.5%→14.5%)가 감소하였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15.5%→45.0%)가 늘어났다(Yoon, 2001; Yoon et al., 2005). 이를 앞의 연구대상 변화와 연관해 보면,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연구 등이 감소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의 문헌연구가 증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과내용연구에서는 아동·가족, 식생활, 의생활 연구가 다수를 이루는 현상은 이전과(J. Cho et al., 2009) 동일하나 그 비율은 아동·가족 내용연구만 다소 증가(40.0%→44.4%)하고 다른 내용연구 비율은 감소하면서 문화통합, 진로, 인구, 저출산 고령화, 환경 등으로 연구내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띠고 있다. 교과교육과 교과내용 통합연구에서는 의생활교육(24.6%→25.0%)을 제외한 다른 내용교육연구는 약간씩 감소하는 반면 문화통합교육이나 진로교육, 저출산 고령화교육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교과교육과 교과내용을 통합한 연구가 증가하고 아울러 교과내용연구나 교과내용교육통합연구의 주제가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3) 연구유형

연구유형은 조사연구, 문헌고찰이나 교과서 내용분석, 교

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사례 면담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Table 9>). 이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48.9%가 조사연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27.1%로 이 중에는 프로그램만 개발한 경우(6.5%)도 있으나 대부분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한 후 평가한(18.9%) 것이었다. 교과서나 문헌 등을 분석한 연구가 22.6%로 뒤를 이었다. 사례연구나 면접법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는 극히 소수(1.1%)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20년(J. Cho et al., 2009)에 비해 조사연구의 비율이 아직 가장 많긴 하지만 그 비율(65.2%→48.9%)이 크게 감소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가(7.9%→27.1%)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문헌을 분석한 연구는 이전(24.9%→22.6%)과 비슷한 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연구영역에서 교과교육과 교과내용의 통합연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연구유형이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로 이루어지는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물론 조사연구 수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 일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4) 주제어

① 주제어 수

주제어 수는 논문당 최소 1개, 최대 10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누적 수는 1,488개로 나타났다. 평균(4.2개)과 중앙값(4개) 전후인 3개(27.4%), 4개(33.6%), 5개(27.7%) 범위에 88.7%로 집중하고 있다(<Table 11>). 반면, 5개 내외의 주제어를 표기

Table 9.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N	%
Survey	173	48.9
Literature review, (textbook) content analyses	80	22.6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96	27.1
Program development only	23	6.5
Program development+evaluation	6	1.7
Program development+application+evaluation	67	18.9
Interview (case study)	4	1.1
Literature review+Survey	1	.3
Total	354	100

Table 10. Number of articles with the same key word

# of Articles with the same key word	# of Key word	%
1	765	79.4
2	109	11.3
3-4	59	6.1
5-9	18	1.9
10-20	12	1.2
30	1	.1
Total	964	100

하라는 투고규정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경우는 한두 개(6편, 1.7%), 혹은 8~10개(4편, 1.1%)를 제시한 소수(3% 미만)논문으로 대체로 4개 내외를 제시하고 있어 투고규정에 주제어 5개 내외보다는 5개 이내가 더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제어 누적총수(1,488개) 가운데 같은 주제어를 2개 이상 논문에서 공동으로 사용되어 중복 계산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논문에 제시된 순수한 주제어 수는 총 964개이다. 이중 거의 4/5의 주제어(79.4%, 765개)는 해당 논문 한 곳에서만 주제어로 표시되었으며, 20.6%(199개) 주제어는 두 편 이상의 논문에서 주제어로 제시된 것이다(<Table 10>).

논문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청소년’으로 8.5%(30편)의 논문에서 주제어로 표시하고 있었다(<Figure 1>). 그 다음은 ‘가정교과’, ‘교수·학습과정안’, ‘자아존중감’이 각각 5.4%(19편), ‘가정과교육’이 4.8%(17편), ‘가정교과사’, ‘중학생’이 각각 4.2%(15편) 순이었다. 964개 주제어 중 단지 31개(3.2%)만이 해당논문을 포함하여 5편 이상의 논문에서 주제어로 표기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10편 이상의 논문에서 표기된 주제어는 13개(1.3%)뿐이었다. 다수 논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학회지를 대표하는 주제어가 빈약한 편이다. 가정과교육의 연구범위가 넓고 게재 논문 간 유사성이 크지 않다고 강하게 가정하더라도 논문검색에서 주제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한 주제어 표기를 가능한 통일성 있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가정교과’와 ‘가정교과’ ‘기술·가정’, 또는 ‘가정과교육’과 ‘가정교육’, ‘가정교과사’와 ‘기술·가정교과사’ 같은 주제어의 표기를 일치시킨다면 해당논문의 검색 가능성과 피인용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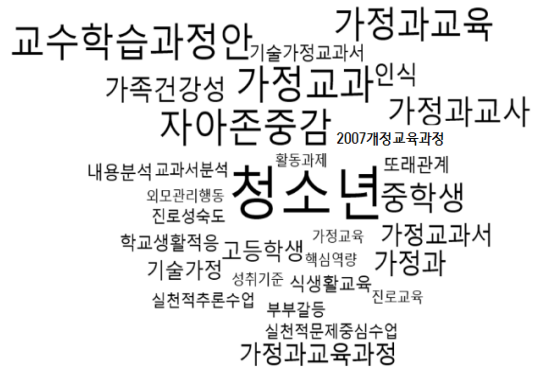


Figure 1. Most frequently used 31 key words

② 논문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에 나타난 주제어

주제어가 논문의 핵심부분인 논문제목과 연구목적, 연구내용/문제에 얼마나 표기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Table 11>). 개별논문의 주제어가 해당 논문제목에 쓰인 경우는 평균 2.8개, 연구목적에 쓰인 경우는 3.0개, 연구내용/문제에 쓰인 경우는 2.6개였다.

대체로 논문 당 4개 남짓한 주제어를 제시한 가운데 논문제목에 2~3개, 연구목적이나 연구내용/문제에 3개 내외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의 쓰임은 연구목적(72.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논문제목(68.7%), 연구내용/문제(61.1%)순이었다. 논문 3편 중 1편 가량은 제시한 모든 주제어를 제목(34.2%)이나 연구목적(39.4%), 연구내용/문제(33.3%)에 반영하고 있었다. 주제어는 60.9%의 논문에서 논문제목이나 연구목적, 연구내용/문제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39.1% 논문에서는 세 곳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주제어가 1~5개씩 남아 있었다. 극단적으로는 논문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어느 곳에도 언급되지 않은 주제어만 5개를 제시한 논문도 있었다. 개별논문의 주제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연구내용/문제가 19.5%, 연구목적 4.2%, 심지어 논문제목(2.3%)에도 있었다. 논문제목과 연구목적, 연구내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주제어를 논문의 핵심부분인 이들 세 곳에 정확히 표기하거나 반대로 이들 부분에서 주제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Table 11. Number of key words and percentages of key words in the title, purpose, research questions, and nowhere

# of Key words	% of Key words in the title		% of Key words in the purpose		% of Key words in the research question		% of Key words not used							
	N	%	N	%	N	%	N	%						
1-2	6	1.7	0	8	2.3	0	15	4.2	0	69	19.5	0	216	60.9
3	97	27.4	1-30	32	9.0	1-30	21	5.9	1-30	14	4.0	1-20	31	8.8
4	119	33.5	31-60	96	27.1	31-60	78	22.0	31-60	70	19.8	21-40	69	19.5
5	98	27.7	61-90	97	27.4	61-90	101	28.5	61-90	83	23.4	41-60	24	6.8
6	25	7.1	100	121	34.2	100	139	39.4	100	118	33.3	61-100	14	4.0
7-10	9	2.6												
Mean %			68.7			72.1			61.1			14.3		
Median %			75.0			75.0			66.7			0		
Mean #	4.2			2.8			3.0			2.6				.6
Median #	4.0			3.0			3.0			3.0				0

V. 결론

이 연구목적은 최근 10년간(2009. 3-2018. 12)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54편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연구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지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게재논문의 발간현황과, 형식(연구자 수와 구성, 쪽수, 표와 그림 수, 참고문헌 수와 참고문헌 중 JKHEEA 논문 수), 내용(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제어)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결과는 학회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학회 회원들의 교육연구 활동성과를 정리하고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학회지운영이나 연구방향을 탐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가정과교육 관련연구를 선도하는 독보적인 전문학술지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학회지발간은 학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2003년 이후 연 4회 발간체제를 지키고 있으나 양적으로 보면 게재논문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대내외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가정과교육 관련연구가 이 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발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학회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단독연구와 공동연구가 대체로 2:8 가량인 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2인 공동연구가 가장 많긴 하지만 최근에는 3인 이상 다인수저자 연구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자구성은 게재논문의 1/3 이상이 교수와 교사나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2인 공동연구이며, 이를 포함하여 절반 이상이 교수와 대학원생이나 교사로 구성된 2, 3인 공동논문이다. 이러한 저자구성 특징에서 보면 학회지의 주요역할이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와 공동저자로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미뤄볼 수 있겠다. 저자 개별 투고실태를 파악하여 처음 논문을 게재한 교사나 대학원생이 학회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가정과교육 연구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논문계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학회 활성화는 물론 게재논문 수 감소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논문의 형식에서는 논문의 쪽수, 표와 그림 수, 참고문헌 수에 있어 범위가 넓게 분포하여 개별논문 간 차이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대략 절반 이상의 논문이 이들 평균이나 중앙값 주변(쪽수 17±2, 표와 그림 수 8±2, 참고문헌 수 35±15)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 범위 좌우에 위치하지만 우측으로 길게 뻗은 소수의 논문이 평균에 영향을 미쳐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참고문헌 중 JKHEEA 문헌 수는 평균 3.7편으로 한편도 없거나(26.6%) 절반이 1~5편 이하로서 해당 학회지 활용이 미미한 실정으로 소수의 논문에서 다량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3편 미만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학회지 게재논문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검토와 함께,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쪽 수, 표와 그림 수, 참고문헌 수 등에 대한 제한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논문의 특성 차이로 보고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우선 필요해 보인다. 논문투고신청서에는 논문 면수, 표수, 그림 수를 적게만 되어있는데, 여기에 참고문헌 수, JKHEEA 문헌수를 추가한 다음 일차적으로 투고자 자신이 수치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차적으로 이를 심사항목에 추가하여 심사위원이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가능한 예외적인 사례를 줄여 개별논문의 특수성을 열어두면서도 느슨한 범위 안에서 학회지 게재논문의 공통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유명무실한 A4용지 15매 내외의 투고분량 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점검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가정교육학회지 게재논문의 내용에서 연구대상은 초기 20년에 비해(J. Cho et al., 2009),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다는 점은 여전히 이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완화되면서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구영역은 전반적으로 교과교육연구는 감소하는 한편 교과교육과 교과내용 통합연구가 증가함과 아울러 교과내용연구나 교과내용 통합연구의 주제가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에서도 이전처럼 조사연구의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긴 하지만 그 비중이 축소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내용면에서 나타나는 추세를 종합해보면, 여전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많긴 하지만 그 집중도가 완화되면서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교육과 교과내용의 통합연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로 이어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회지 게재논문의 내용면에서는 가정교육학회지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영역에서는 크진 않지만 교과내용연구와 교과내용 통합연구 주제가 기존보다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방법은 다양화 대신 기존 사용범위 내에서의 비중 변화만 일어나고 있다.

주제어에 관한 분석은 이 연구에서 처음 시도한 내용으로, 주제어 수는 90%가 평균(4.2개) 좌우인 3~5개인데 비해, 소수가 1개부터 최대 10개까지 제시하고 있어 앞서 논문 쪽수나

표와 그림 수, 참고문헌 수와 함께 점검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5개 내외의 주제어를 표기하도록 한 투고규정을 현실적으로 5개 이내로 수정해도 무방해 보인다. 또한 주제어의 4/5 가가 이가 단지 해당논문 한 곳에만 제시되어 있으며, 5편 이상의 논문에 공통으로 쓰인 주제어도 31개(3.2%)뿐으로 학회지를 상징하는 주제어 공통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논문검색에서 주제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게재논문의 피인용 비율을 높이고 학회지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기 위해 유사한 주제어 표기를 가능한 통일성 있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주제어가 논문의 핵심부분인 논문제목과 연구목적, 연구내용에 반영되어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어가 이들 세 곳에 나타나도록 정확히 표기 하거나 반대로 이들 부분에서 주제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연구자의 주의가 필요하겠다. 학회차원에서도 교과명, 연구대상, 수업방법, 주제 관련 핵심개념 등을 중심으로 주제어 표기와 선정 지침안내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 한국가정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초기 20년 동안 게재된 논문과 비교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특징과 변화 추세 및 개선점을 제기하였다. 학회지창간 30주년 동안 투고규정 등이 일부 보완되긴 했으나 개별연구의 특성변화를 반영하는 투고규정 등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구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게재논문의 변화에 맞춰 학회지 특색을 살리면서 게재논문 수를 확보하여 학회지가 학문 후속세대의 지속적인 참여의 장이 됨으로써 가정교육연구 공동체 활성화와 학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Chang, D.-H. (2004). A study on the journal evaluation policy of Korea Research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1), 359-376.
- Cho, B. E., Lee, J. H., Lee, H. J., & Joo, H. J. (2009). Research trends o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i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A*

- review and prospect of research during the past 20 yea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3), 143-161.
- Cho, J.-S., Jun, M.-K., & Lee, Y.-J. (2009). The 20 years' activities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4), 177-193.
- Jang, S.-O. (2007). Trends of housing education research in Korea and Japan from 1989-2006.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2), 115-129.
- Joo, H., Cho, J., & Choi, Y. (2017). Contents analyses of teaching and learning research on housing education of home economics for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3), 33-48.
- KHEEA. (1989). Preparation progress repor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1), 113-116.
- KHEEA. (n.d.). *투고규정 [Regulations for manuscript submission]*. Retrieved from <http://www.khomedu.or.kr/sobis/kheea.jsp>.
- Kim, E. J., Kwon, Y., & Lee, Y.-J. (2014). Research trends i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17-34.
- Kim, N.-Y., & Rhee, K.-C. (2005). A study of consumer education research o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4), 27-40.
- Ministry of Education. (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The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1997-15 [separate volume 10]. Seoul: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5). *실과(기술·가정)/정보 교육과정 [The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Information Curriculum]*.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74 [separate volume 10].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The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 Curriculum]*.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79 [separate volume 10]. Seoul: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The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 Curriculum]*.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1-361 [separate volume 10]. Seoul: Author.
- Moon, H.-K., & Lee, Y.-Y. (2009). Research trends i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109-125.
- Park, M.-J., Yu, I.-Y., Lim, I.-Y., Lee, J.-H., & Cho, J.-S. (2007). Contents analyses of housing educational research in home economics of secondary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2), 35-49.
- Ryu, S.-H. (2001).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o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3(1), 1-11.
- Yang, J.-H., & Shin, S. H. (2003). Research trend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ince 7th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1), 61-72.
- Yoon, I.-K. (2001). Trend analysi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3(2), 73-83.
- Yoon, I.-K., Lee, J.-G., & Kim, S.-G. (2005).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4), 55-71.

<국문요약>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2009. 3~2018. 12)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전체논문 354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논문 발간현황(권, 호, 게재논문 수, 발간형태)과, 형식(연구자 수와 구성, 쪽수, 표와 그림 수, 참고문헌 수와 참고문헌 중 JKHEEA 논문 수), 내용(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제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학회지운영을 점검하고 연구방향을 탐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가정과교육 관련연구를 선도하는 독보적인 전문학술지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학회지발간은 2003년 이후 연 4회 발간체제를 지키고 있으나 게재논문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단독연구와 공동연구가 2:8 가량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2인 공동연구가 가장 많긴 하지만 최근에는 3인 이상 다인수저자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자구성은 절반 이상이 교수와 대학원생이나 교사로 구성된 2, 3인 공동연구논문이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게재논문의 형식에서는 논문의 쪽수, 표와 그림 수, 참고문헌 수에 있어 범위가 넓게 분포하여 개별논문 간 차이가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대략 절반 이상의 논문이 이들 평균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나 우측으로 길게 뻗은 소수의 논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중 JKHEEA 문헌 수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논문투고신청서와 심사항목에 이들 항목을 추가하여 개별논문의 특수성을 열어두면서도 느슨한 범위에서 게재논문의 공통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학회지 게재논문 내용의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많긴 하지만 그 집중도가 완화되면서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교육과 교과내용 통합연구가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연구로 이어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회지 게재논문의 내용면에서는 가정교과교육학회지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처음 시도한 주제어 수는 대체로 평균(4.2개) 좌우인 3~5개로, 소수가 1개부터 최대 10개까지 제시하고 있어 앞서 논문 쪽수 등과 함께 점검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주제어의 4/5 가까이가 단지 해당논문 한 곳에만 제시되어 있으며, 총 354편의 논문 중 5편 이상의 논문에 공통으로 쓰인 주제어도 31개(3.2%)뿐으로 학회지를 상징하는 주제어의 공통성이 매우 낮아 유사한 주제어 표기를 가능한 통일성 있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주제어가 논문의 핵심부분인 논문제목과 연구목적, 연구내용에 반영되어 상관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학회지창간 30주년을 맞아 이상에서 밝힌 게재논문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학회지 특색을 살리면서 게재논문 수를 확보하기 위한 투고규정 등의 점검이 요구된다.

■논문접수일자: 2019년 05월 27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05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06월 30일